김재홍 <아리스토텔레스『시학(시작술)』연구>

제1강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의 기초적인 이해

1교시

◆ 『시학』의 주요개념과 배경설명

▲ 전반적인 강의 내용 설명

오늘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관의 차이, 또 미메시스에 대한 얘기, 또 깊은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읽어가면서 얘기해야 할 대목이지만 미메시스에 대한 얘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예술관의 차이, 카타르시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번 시간하면서 챕터 1장에서 이 시학에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시학이라는 말의 어원- 포이에티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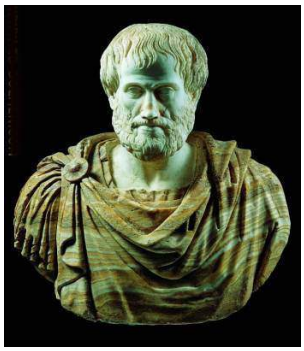
그 1장을 읽으면 한 대목만 한 패러그래프만 읽으면 이 한 패러그래프 자체만 해도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인데요, 번역부터 시작해서 제가 한 번 읽어보면요"우리의 주제는 시학이므로 나는 먼저 시의 일반적 본질과 그 여러 종류와 각 종류의 기능에 관하여 말하고, 이어서 훌륭한 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플롯의 구성과 시의 구성 요소의 수와 성질과 그 밖에 이 연구 분야에 속하는 다른 사항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자연적 순서에 따라 기본적 사항에서부터 시작하기로 하자."비슷한가요? 그쪽두요? 번역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한없는 대목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천병희 선생이 의도하는 시라는 말 자체부터, 또 제목이란 말, 시학이라는 말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말이고, 이 포이에티케(poietikē) 라는 말. 천병희 선생도 그 각주에다 포이에티케 라는 게 원래 뜻은 작시 기술이다. 뭐… 그런 말부터 나왔어요. 이 케라는 말이 테크네(Technē) 라는 말 접미사로 쓰일 때 의미는 테크네 라는 뜻인데 요즘에 테크놀로지 그 말 이게 희랍 쪽에서 가장 그 말이고, 이 말은 포이에시스라는 말부터 있지요. 그 포이에인 이라는 말 동사에서 온 말인데 이게 만든다 하는 메이킹, 메이크하다 라는 뜻이고 이건 명사형 형태이고 만듦, 그러면서 이제 만듦에 관한 기술이지요. 만듦에 관한 기술, 그러니까 일종의 제작술에 관련되어 있고, 시 제작술이죠. 말 그대로하면 그러니까 이제 시학이라고 하기보다는 시작술 혹은 시제작술, 시작술 글쎄….

▲ 시학의 주제- 비극

www.artnstudy.com

뭐라고 하기 참 고약하지만 우리가 시학으로 말하고 있지만 또 여기서 말하는 시라는 게 뭐냐?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의 시학의 주제는 주로 요즘말로 하면 무슨 시에 관한 이론을 써 놓은 게 아니고 이때 말한 시라는 건 주로 드라마를 말하는 것이고 또 드라마 중에서도 특별히 그 비극 이라는 것, 트레고디아(Tragodia) 라고 하는 거 정말 이 말을 비극으로 옮겨야 되는지 또 의문이 될 수 있거든요. 오디아 라는 말이 노래라는 뜻이고 이게 양, 염소, 트라고스 라는 말이 염소인데 염소의 탈을 쓰고 이렇게 하는 데서 왔거든요. 실제로 나중에 본문에서 읽으면 비극 이라는 게 그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익스피어 4대 비극, 햄릿… 해서 4대 비극 속에서 어떠한 주인공이 살다가 어떤 불행에 빠져서… 그렇게 결말을 끝낸 거 로미오 줄리엣 하듯이 이제 그런 의미의 비극은 아니고 이 시학의 비극이라는 것이 시의 범주, 요즘 말로 하면 오히려 비평문학,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평문학에 해당될 수 있는 작품으로 여겨집니다.

▲ 아리스토텔레스 학문과 저작의 구조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 저작이 인간의 행위라는 것을 안다 혹은 본다 해도 좋고요. 본다라는 글에서 왔으니까 또 행한다, 만든다 해서 이 아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학 이라고 하고 행한다는 실천학 이라고 하고 이 만듦에 관련된 것이 제작학 인데, 이 시학이라는 작품은 이제 만듦 인간의 행위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에 해당되는 것이 이런 학문이고 만듦에 관련된 우리의 행위가 이제 학문적으로 하면 제작학 이고, 주로 이 이론학 이라는 것은 형이상학 신학 자연학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하고 또 실천학이라는 것은 윤리학 또 도덕철학 윤리학 이게 관련된 것 또 제작학 이라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시학이라는 작품 또 레터리카 라는 수사학이라는 작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만듦에 관련된 거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읽어보고자 하는 이 시학의 해당되는 것 이지요. 그리고 제가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에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대개 이제 여기서 설명 나오지만 이게 1447a8부터 1462까지 되어있네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을 묶은 19세기에 베커라는 사람, 이제 전승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구태여 하지 않겠지만 1페이지부터 베커라는 사람, 독일 사람인데 베커라는 사람이 1페이지부터 아리스토텔레스 07:23 두루마기 저작들을 쭉 에디트해서 묶은 책이에요. 이제 그 페이지 넘버를 가리키고 a라는 것은 좌측 이렇게 에디트 했으면 이게 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되어있으면 좌측을 a 우측을 b. a, b 그래서 1a에 몇 행 몇 행해서 대게 40행 길면 40행 대개 35행까지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1페이지 a에 40행, 가령 1447a8이라 하는 것은 이제 베커판 아리스토텔레스 전집에 페이지 숫자 1447쪽에 왼쪽 8행부터 1462쪽까지 시학이 텍스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은 이걸 좌로 표시하기도 하고 이제 좌측이고 우측, 우측이니까 b는 또 우측으로 표시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페이지 숫자입니다.

이제 베커판의 순서라는 게 아까 학문의 순서를 이론학, 실천학, 제작학으로 나누었지만 맨

www.artnstudy.com

먼저 오는 1쪽부터 오는 것들은 대게 가장 먼저 오는 게 오르가논이라고, 주로 논리학적인 저작이 오구요.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나서 자연학, 이론학에 해당되는 자연학 작품이 오고 논리학 무슨 카테고리로부터 소피스트 논박까지 주로 논리학적인 저작이 오고 요건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에는 본격적인 학문을 하기위한 하나의 예비학으로 해서 하나의 논리적인 훈련,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에 관련된 것들이 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분석론 전서 후서 같은 것은 삼단논법이라든가 학문의 방법론 같은 것을 주로 얘기하고, 학문이 아니고 아직까지 그런걸 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르가논이라고 했는데, 학문을 하기 위한 도구라는 측면에서 이론학에 속하는 자연학이라는 작품, 또 그 후에 피지카 라는 작품이 자연학의 대표적인 거구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저작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990쪽쯤 가서 형이상학이라는 작품, 메타피지카라는 아주 가장 골치 아픈 저작 중에 하나이지요. 이게 메타피지카 라는 거, 이제 자연학 다음에다 배열했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는데 현대 와서는 메타피지카 라는 말이 메타피직스라 해서 형이상학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지지요. 자연학 다음에 그런 뜻으로 피지카 다음에 메타라는 전치사를 붙여져 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론이 나오고 천 이백 대쯤, 천 백대쯤 와가지고 이제 니코마코스 윤리학 같은 실천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실천학이 오고 레트릭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으려는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제 베커판 페이지의 편집한 순서에 의하면 마지막에 위치한 대목이 제작학의 시학이 마지막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또 생각나면 또 그 대목을 하겠지만 이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의 전체 구조 자체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에디트할 때 어떤 순서 같은 것도 하나의 철학적인 관점, 편집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고 또 그러한 전통은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 왔고요. 우리가 지금 읽으려는 작품이 이 포이에티케 라는 작품이고, 이 작품에서 가장 논의거리가 되는 것이 소위 큰 주제가 되는 미메시스 라는 것하고, 모방이라고 흔히 번역하는데 재현이라는 말로 요즘에는 많이 합니다만 리프리젠테이션이라는 말, 재현이라는 것. 또 하나는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카타르시스라는 말, 이 카타르시스라는 말은 사실은 시학에서는 챕터 6장에 가서 단 한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 6장 - 비극정의에서의 카타르시스

아리스토텔레스의 미학 예술관만 얘기 나오면 전부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 도대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카타르시스라는 게 뭐냐? 그 유명한 그 6장에 읽어보시면, 비극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6장에서 나옵니다. **"비극의 본질을 정의해보자. 비극은 진지하고 일정한 크기를 가진 완결 완결된 행동을 모방하며 쾌적한 장식을 가진 언어를 사용하되 각종의 작품은 작품의 상이한 제부분에 따로 삽입된다."** 가장 유명한 대목이죠? "비극은 드라마적 형식을 취하고 서술적 형식을 취하지 않으며 연민과 공포, 두려움을 환기시키는 사건에 의하여 바로 이러한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행한다."카타르시스가 이 대목에서 나오거든요. " 비극은 진지하고 일정한 크기에 완결된 행동을 모방한다." 여기에서 모방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비극은 드라마적 형식을 취한다. 서술적인 형식을 취하지 않는다 하는 대목. 이 비극이라는 말이 시라는 말하고 대치될 수 있는 말 이구요. 그 다음에 연민과 공포를 환기시키는 사건에 의하여 이러한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행한다. 이때 카타르시스가 뭐냐, 또 이러한 감정 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라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 이 해석에 관련해서 수없는 해석이 내려왔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얘기만 나오면 뭐 전부 카타르시스, 미메시스 얘기들이 가장 주된, 우리가 관심 갖고 또 보통 문학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예술 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

www.artnstudy.com

는 말 대목이지요. 실제로는 도대체 카타르시스가 뭐냐, 또 미메시스가 뭐냐 이 대목에 관련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관의 차이를, 주로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미메시스의 의미 - 경험의 재현

나눠드린 페이퍼를 일단 보면서 모방에 대한 얘기, 미메시스에 대한 얘기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모방이라는 말은 원래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대개 종교적인 의미에서 미미크리 한다는 말로, 정말로 모방, 미미크리 라는 뜻에서 모방한다는 말로 쓰이는데 또 그 밖에도 이게 종교적인 제전, 디오니소스, 주로 제전에서 흉내를 낸다는 의미로 미미크리 라는 말을 썼습니다. 미미크리 음… 이것은 영어식으로 미미크리(mimicry), 모방한다. 모방한다는 것이 흉내 내는 것이지요.

춤을 출 때 가령 춤추는 것이 새를 모방하고, 또 노래라는 것도 새의 목소리를 흉내 내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다시 재현해 놓는다는 의미에서 미메시스 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춤 같은 것도 우리가 경험된 사실을 재현하는 거지요. 춤이라는 것도 모방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고 흉내 낸다 하는 뜻 에서부터 미메시스 라는 말, 그런 의미에서 재현, 움직임도 재현할 수 있고 소리도 재현할 수 있고 말을 통해서 재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의미까지도 그렇게 미메시스를 사용합니다. 또 핀다로스의 텔루스 찬가 같은 경우에는 춤추는 것 자체, 춤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춤도 사실은 흉내 내는 거지요. 새들의 날갯짓 하는 것을 흉내 내서 학춤을 추기도하고 그런 것 이지요.

▲ 앎과 즐거움(여흥)으로서의 모방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쓰는 이 모방이라는 말도 이제 넓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앎이라고 하는 것이 모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형이상학 첫머리에서 우리 2쪽 넷째 줄에 보시면 인간은 알려고 하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알고자 앎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모방으로부터 시작된다. 어린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것도 부모님 말을 모방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인식의 단계까지 나가는 것, 그 중간에 이제 모방 이라는 게 있고 그 모방을 통해서 모방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을 준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으면 모방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방과 즐거움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지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확신할 순 없지만 우리가 읽어가면서 따져봐야 되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과 달리 어떤 즐거움이라고 하는 영역을 굉장히 중시하고 모방이라는 영역을 굉장히 중시했거든요. 또 이 모방이라고 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에 의하면 그것도 아마 시학에 있는 것 같은데, 3장에 나오든가요? 모방은 4장에 나오든가요? “모방은 인간에게 있어 어린 시절부터 선천적인 것이며 또 인간이 하등 동물보다 나은 성질 가운데 하나는 인간이 세상에서 모방을 가장 잘 하는 동물이다.”에요. “처음에는 모방에서 배운다.”그 똑같은 얘기를 4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하고 있어요. 4장 첫머리에 나오는 게, 모방한다는 것은 어렸을 적부터 미메이스, 미메스타이라는 말입니다. 희랍어로 모방한다는 거 토 미메스타이(To mimesthai) 모방한다는 거 토 미메이스타이 토 미메이스 모방한대 모방한다는 것은 어렸을

www.artnstudy.com

적부터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 것으로 이건 형이상학에 아까 한 얘기랑 똑같은 것이지요. 모방을 잘 한다,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그래서 지식을 습득한다 하는 측면 메타피지카에서 한 얘기가 똑같고, 메타피지카 1권의 처음 모두에서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추가한 것이 메타피지카에 없는 것이 시학에서는 인간은 날 때부터 모방된 것에 대해서 어떤 즐거움, 쾌감이 있다.

시학에서 이 시문학 또 예술, 춤, 음악, 조각 같은 것을 발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시를, 노래를 부른다는 것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같은데 보면 먹고 마시고 나서 여흥을 즐기기 위해서 시가 시를 노래를 했다는 거지요. 시인들이 나와서 악기를 치면서…. 시의 목적이 뭐냐…, 결론적으로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어떤 내면적인 것을 표현 하는 것 보다는 현대에 있어서 그런 문학에 자기 생각이라든가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느낌 이라든가 그런 걸 표현한다는 그 어떤 표현 예술이기보다는 시의 목적이 즐거움 여흥 거리로 시작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메로스 일리아스에 보면 그런 구절 여럿 나와요. 대개 술이 취해서 그 다음에 하는데 그 내용이 주로 자신의 감정, 주관적인 느낌 또 그로부터 자신의 생각을 표출한 것 보다는 주로 영웅들의 영웅담, 자신의 경험한 것 같은 것을 보고하는 것, 자기가 보았던 것, 겪었던 것 이러한 것을 보고하고 다른 영웅들이 실제로 행했던 업적을 추앙하고 기리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의 목적을 두었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예술이라고 하는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메시스

그러면서 그 과정이 플라톤에 이르기까지 예술의 본질이 모방이 되는 측면으로 굳어지기 시작하지요. 플라톤도 기본적으로 모방이라고 하는 측면 그러니까 예술이 모방한다. 자연의 모방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지요. 사실 예술에서 아마 모방론이 뿌리가 가장 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가령, 예술이, 또 시라는 것이 넓은 의미로 쓰인다고 했죠? **오늘날의 그런 좁은 의미의 시 말고 넓은 의미의 문학 전체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될 듯한데, 시라는 것이 모방이라는 측면에서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어느 대목에서 그럼 예술에 대한 그 생각을 표현해 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좀 어려워요. 국가편이라든가 법률편이라든가 또 필레보스 라든가 또 시에 대해서는 이온 이라고 하는 대화편에서 어떤 그 마니아라는 측면 즉, 광기 이와 같은 것 그런 측면에서 이온 대화편에 나오고 또 아름다움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히피아서 메이저라는 대화편에서 아주 분산해서 나왔기 때문에 플라톤의 정확한 예술관이 뭔지를 정리하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을 안겨주기는 합니다. 다만 플라톤은 예술이 기본적으로 모방이라는 측면은 부인하지 않았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도 같은 관점을 이어 받고 있고, 다만 이 미메시스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플라톤 입장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입장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온 것에 의하면 이 국가편 3권 10권에서 주로 얘기 나오고 있고, 3권에서는 교육론을 주로 얘기하거든요. 정의로운 국가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아이들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하는 얘기가 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www.artnstudy.com

제1강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의 기초적인 이해

2교시

◆ 『시학』에 있어서의 예술의 정의

▲ 희랍의 무스케와 짐나스티케

이 희랍, 이 무스케(Mousikē) 라는 말하고 이것을 흔히 음악으로 뮤직, 영어에는 음악으로 번역하지만 사실은 각주에도 있지만, 시가 일종의 인문 교육에 가깝습니다. 인문 교육에 가까운 대목인데 희랍 사람의 교육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스케에 대한 교육, 주로 호메로스의 시를 읽는 것 대개 음송하고 하는 것이겠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짐나스티케(Gymnastikē) 라는 게 있는데 국가편 3권에서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교육에서 하나인 무스케의 경우는 일종의 인간의 영혼, 정신을 위해서 이고요. 짐나스티케는 인간의 체육이라는 말이지요. 체육술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테크네라는 말이니까 이 술(術)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것은 체육에 관련된 것이고 이것은 육체에 관련된 것이지요. 따라서 **영혼과 육체의 조화 그것이 한 인간이 정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것 뿐 아니라 육체적인 것 이 두 측면이 하르모니아를 이루고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의 정의로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측면의 교육이 중요한데, 무스케의 교육은 주로 시에 대한 교육이었고 이쪽은 이제 체육인데, 이 체육이라는 것도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주로 전쟁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했지요. 예전에 우리 수류탄 던지기라든가 하듯이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교육이 주로 희랍에서 교육했는데, 우리가 흔히 로마시대에는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영혼이, 건전한 정신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거꾸로 오히려 건전한 정신을 가져야 건전한 육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입장은 오히려 정신적인 것이 인간의 건전한 육체를 가지고 온다는 생각, 포인트는 영혼 속에 있다는 말이지요. 건전한 신체 속에 건전한 영혼 건전한 정신이 깃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플라톤 입장은 정확히 말하면 건전한 정신 속에 건전한 육체가 올 수 있는 것으로 생각 했습니다. 그러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무스케 교육에 담을 것인가? 이제 교육의 내용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 테크네의 의미- 예술이 아니라 기술

그런데 진행하기 전에 이 테크네에 대한 얘기를 한 말씀 더 드리고 가면, 우리가 아까도 포이에티케라는 말도 이 테크네이니까 시작술(詩作術) 이라 그랬지요. 이 테크네라는 말이 로마시대에 가면 라틴어에는 알스(ars)라는 말로 바뀌고 이게 요즘에 아트(art)라는 말로 바뀌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오역일수도 있는데, 그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에 무슨 알스롱가 비타브레비스(ars longai vitabrevis) 라는 말, 사실은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적어 갖고 왔는데 히포크라테스가 했다는 말 이 말을 테크네나 알스나 이 말이 오해를

www.artnstud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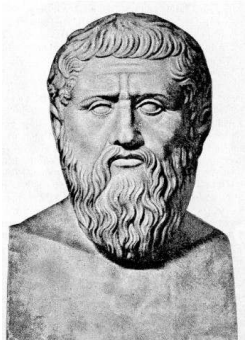
많이 일으켰어요. 알스롱가 비타브레비스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오카시오 프레이캡스(occasio praeceps), 이렇게 해서 계속 순서입니다. 요렇게 알스롱가 비타브레비스 오카시오 프레이캡스. 그 다음에 엑스페르맴툼 페리콜로섬 이디키움 디피킬레(experimemtum periculosum iudicium difficile).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고, 기회는 자주 오지 않고, 또 경험은 불확실하고, 또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때 알스 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예술이라는 말로 하고 있지만, 테크네 라는 말, 알스 라는 말 속에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테크네라는 말 속에는 이런 예술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의학적인 기술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또는 기예로 말이 옮겨야지 되는 말인데, 우리가 요것만 딱 까가지고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그니까 의학적인 기술이라는 것은 그걸 갖고 있다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의학적인 기술을 획득하지요? 갖고 있다가 그 놈은 남에게 전해 주지요. 그러면 길게 갈 수 있거든요. 계속 전해지니까 배움을 통해가지고 가르침을 통해가지고. 그러나 이 그 인생이라는 것은 삶이 라는 것은 기술을 알기 위해서는 삶이라는 것은 너무 짧고 의학적인 기술 치료기술 이 얼마나 그 모든 병상, 병을 진료할 때 기회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이 필요한데 그걸 경험하기에는 우리 인생은 너무 짧고, 또 그걸 찾아낼 기회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 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확실한 측면이 여럿이 있고, 또 어떤 질병을 보면서 거기에 어떤 판단을 내린다는 것, 저지먼트 한다는 것은 또 그만큼 어렵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예술이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기술에 관련된 기예, 예술은 길다는 것 보다는 기예는 길고 기술은 길고 뭐… 그렇게 표현해야지 원래 말인데, 이제 이 말, 물론 이건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저서들을 조금 남겼죠. 선서 관련된 것도 있고, 질병의 원인에 관한 것도 있고…. 그런 말 속에 단편적으로 전해오는 것입니다.

▲ 문학 비평으로서의 시학

무스케라는 것도 그렇지만 이것도 일종의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술, 시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드는 것도 어떤 기술이거든요. 비극을 만들 때 이 사람 입장에서 아까 우리 6장에서 비극의 정의를 우리가 미리 읽어 봤지만, 비극이라는 것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우리에게 비극이 노리는 그 효과를 줄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이론서 일 수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오이디푸스 왕에 관한 것이 주로 그 에우리피데스의 작품 소포클레스의 작품, 뭐 이런 연극 작품을 드라마를 넣고 거기에서 어떠한 틀을 갖추어야 제대로 시와 드라마의 효과를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비평한 책이라고 보는 것, 크리티시즘 이라고 보는 것이 이 시학이라는 작품에 더 정확하게 맞아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 오늘날로 말하면 드라마니까. 그 드라마라는 걸 문학의 한 장르로 본다면 뭐… 문학 작품 전반에 대한 어떠한 가장 중요한 걸 어떠한 것이 있고 또 플롯은 어떻게 해야 하고, 길이는 얼마만큼 해야 하고, 양은 얼마만큼 해야 되고 등등….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우리에게 이 시학이라는 작품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www.artnstudy.com

▲ 플라톤의 국가편- 예술에 대한 검열의 필요성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서 또 얘기될 수 있는 대목인데. 그렇다면 플라톤이 국가편에서 얘기하는, 이런 모방을 하는 예술을 가령, 왜 국가편 10편에 가서는 시인에 대한 추방을 얘기하거든요. 당시의 입장에서는 철학자하고 시인하고는 어떤 대립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제 모방이라는 것은 국가편 10편에 가면 침대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지요. 제가 나눠 드린 것을 보면, 10권에서는 시인의 추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술에 검열이라는 것, censorship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플라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검열. 어떤 예술은 허용하고 어떤 것은…, 어떤 시는 허용하고 어떤 것은 허용하지 않고. 가령 영웅들이, 장군들이 전쟁터에서 눈물을 흘리고 또 자기 가족을 그리워하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가지고는 이 아이를 제대로 교육 못시킨다. 제대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영웅들이 울었겠느냐, 또 하데스라고 하는 것, 죽으면 우리 몸을 떠나가지고 가는, 그 우리 영혼이 간다는 그 하데스에 가는 걸 두려워했겠느냐, 그런 식으로 가르침으로서, 아이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고 또 죽음을 두려하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교육의 목적 때문에 정의로운 국가를 건설하고 정의로운 국가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예술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방이라고 하는 것, 미메시스라는 게 허구일 수밖에 없는데, 진짜 참 모습은 아니고 참모습에서 그것을 보고 나서 우리가 재현해 놓은 것이니까 이것은 허구일 수밖에 없다. 교육을 하려면 진짜의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허구적인 모습, 모방된 것을 미메스타이한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하는 측면에서, 진리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시 하지요. 플라톤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의 예술을 말씀드리자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에 나쁜 성향을 배태시키는 이런 것은 다 제거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정의로운 국가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영혼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술의 도덕성을 중시하는 것이지요. 그 진실을 중시하는 것이지요. 가령, 우리가 요즘 아이들이 에로틱한 영화를 보면 아이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령, 중학생 아이들이 여학생 폭행했는데 왜 했느냐 물어보면,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러한 것을 보고 그걸 흉내 내기 위해서 했다. 봐라. 플라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것을 아이들이 봄으로써 영향을 미쳐서 영혼에 나쁜 성향이 배태되어서 그러한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 따라서 인간의 정신에, 영혼에 나쁜 성향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술들은 국가에서 검열해야 된다. 따라서 그러한 예술을 만들어내는 시인들은 국가로부터 추방시켜야 된다. 이게 일종의 도덕주의적인 예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는 것이지요.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톨스토이 사람이지요.

▲ 예술의 전염력과 검열의 기준

인간의 성향에 좋은 영향을 끼치면 그게 일종의 인펙션 씨오리, 전염, 전염력이 강한 거면 이게 이제 좋은 예술이라는 거지요. 전염력이 약한 것은 그러한 관점이라면 나쁜 예술이 될 수밖

www.artnstudy.com

에 없지요. 과연 예술이 정말 전염력이 있는 것이냐…, 인간의 영혼, 정신에 깊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측면에서 플라톤이나 톨스토이 같은 사람들은 깊은 영향을 끼친다. 모방할 수밖에 없다. 그 모방이라는 게 단순히 즐기는 차원, 즐거움의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성에까지 전염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전염력이 강한 것은 좋은 예술이지만 그 전염력이 나쁜 쪽으로 끼치는 예술들은 추방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플라톤의 예술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제가 쓴 것에 보면, 검열을 받는 기준은 어떤 거냐…, 죽음을 두려워하는 시구라든가, 훌륭한 인물들이 비탄해 하고 슬퍼해하는 시구라든가, 감정을 격앙시키는 시구들, 또 훌륭한 인물들을 우스개 꺼리로 만든다든가, 또 절제심을 가로 막는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다 나쁜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제거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예술이 인간의 정신에 영향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예술론 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전염적 기능이 아주 심각한 피해를 가져온다면 그런 것들은 검열을 통해서 제거되어야 된다 하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염력의 정도 같은 것이 예술의 우수성이라는 척도로 보는 거지요. 그런 얘기가 주로 플라톤의 국가편 3권에 나와 있고, 10권에 가면 이러한 전염, 동화시키는, 있는 사실에 대한 모방으로부터 그 모방이라는 것이 내가 새들이 노래하는 것을 모방해서 휘파람도 불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방이 인간의 심성에 영향을 끼쳐서 형이상학적인 이론, 이데아론 까지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10권에 가면요.

▲ 플라톤의 이데아와 모방

그러면서 이 침상에 비유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유명한 대목이기도 하지만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것이 있지요.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 우리 경험 세계를 뛰어 넘는 어떤 초월적인 어떤 것**이지요. 책상의 이데아 또 삼각형의 이데아, 이 경험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이데아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지요. 이 경험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편적인, 이건 개별적인 책상이지만 이 책상을 책상이게끔 해주는 어떤 존재 하나 하나라는 특징을 갖죠. 이데아라는 것이. 그래서 침상의 이데아가 있고, 이 침상의 이데아를 보고서 우리가 사용하는 침상을 만드는 목수가 있고, 그걸 보고 이제 데미우르고스, 제작자라고 하지요. 제작자가 있고 요걸 보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고, 그렇다면 정말 이것만이 진리이고 이것만이 실제 하는 것이고 진리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벌써 화가가 만든 이 관계는 뭐예요? 이게 다 미메시스한 관계거든요. 침상의 이데아를 보고 목수가 침상을 만들어 내고, 실제 여기 만들어낸 것을 보고 화가는 그림을 그리고…, 이 관계가 다 모방의 관계이거든요. 근데 **화가가 그려낸 이 모방한 것이라고 하는 생산품은 진리로부터, 진짜 침상으로부터 세 단계 떨어져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그 거짓이 된 거지요. 이런 거짓된 것을 보고 어떻게 침상이 뭔가 할 때, 침상의 이데아를 보고 침상이 무언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데 그놈부터 세 단계 떨어진 가짜의 가짜를 보고, 침상이 무언가를 그림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은 올바른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순신이 어떻게 생겼느냐, 진짜 이순신을 봐야 이순신을 아는데, 저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보면서 저게 이순신이래, 제대로 몰라도 되. 그나마 그 동상의 그림자를 보면서

www.artnstudy.com

요게 이순신이래…. 이렇게 말 할수록 진리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지요, 자꾸 모방하면 모방할수록.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보시면 모방, 미메시스는 자연으로부터 세 단계 떨어져 있는 것에 관련 되어있다. 이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피지스(physis) 그 자체, 이데아가 있는 그런 거지요. 본래 실제로 존재하는 그것으로부터 세 단계 떨어져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각주에 보면 단테의 일페르노에서도 그 말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자연이 신의 딸인 것처럼 예술은 자연의 딸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당신의 예술은 신의 손자이다." 단테와 같은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음 6쪽에 위에서 첫 번째 줄부터 읽으면, 모방자들 가운데 비극 시인은 진리와 왕으로부터, 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진리라는 것, 이데아 침상에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것. 역시 세 단계 떨어져있다. 예술의 모방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세단계로 구별이 된다. 침상 자체, 제작자가 만들어 낸 침상, 모방을 글로 표현해 낸 침상, 거기에 화가와 시인에 의해 모방된 것은 이데아가 아니다. 만들어진 대상들의 모방일 뿐이다. 따라서 모방은 진리로부터 떨어져있고 단지 어수룩한 사람만이 그것에서 미혹된다. 뭐가 뭔지 모르게, 인간이 사리 판단을 못하게 만들고 거짓된 것에 미혹하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얘기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다음 다음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국가편 10편에 있는 얘기들 요약한 것인데 **"모방자(예술가)에게는 참된 지식이나 올바른 믿음이 있을 수 없다. 그는 단지 무지한 대중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만을 모방한다. 따라서 모방은 혹은 예술은 유희이지 진지한 것 시리어스한 것은 못 된다는 것이지요. 시리어스 해야 되는데, 그래야 진리적인 측면을 보존할 수 있는데, 그저 즐기고 하는 유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진지하지 못한 혹은 진실 되지 못한 예술은 인간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생각이 플라톤의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혼을 해치는 모방술이라고 하는 것은 제거되어야 된다. 그래서 플라톤이 10권, 국가편에 가서 소위 시인 추방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도덕주의자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에 대해서,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미메시스 한다는 것이 앎의 출발점이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www.artnstudy.com